

Toward Asian's Representing Packaging Exhibition **KOREA PACK 200**



KP Korea
Pack
2007

포장기자재 각축 4월 24일 킨텍스서 열려

최신 포장기계와 포장재 등 포장시장의 트렌트를 읽을 수 있는 '코리아팩 2007'이 지난해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으로 오는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4일간 일산 한국 국제전시장(KINTEX)에서 그 화려한 막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로 12회를 맞고 있는 이 행사는 (사)한국포장협회, (사)한국포장기계협회, (사)한국제약협회, (사)대한화장품협회, 월간포장, (주)사이언스21, (주)경연전람, KOTRA 공동주최로 열리며, 올해도 역시 유사 산업의 통합과 대규모 전시라는 세계 전시 흐름에 맞춰 각 분야의 유관산업을 한자리에서 둘러볼 수 있도록 꾸며질 예정이다.

코리아팩 2007, 당당한 국제전시회의 하나로

코리아팩 2007은 현재 독일의 인터팩(INTER PACK), 미국의 팩 엑스포(PACK EXPO)와 일본의 도쿄팩(TOKYO PACK)과 함께 세계 4대 포장전시회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12회라는 짧은 역사에 비하면 놀라울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올해는 작년의 27개국 512개사 1250부스라는 기록을 넘어, 30개국 600개사 1400부스가 참가할 예정이어서 곧 세계 3대 포장전시회라는 타이틀도 멀지 않았다는 평가이다. 이와 함께 코리아팩에 참가를 앞두고 있는 업체들은 전시회를 통해 포장유관 산업 전반이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다.



코리아팩이 유망 전시회로 거듭나기까지

코리아팩은 지난 2004~2006년 3년 연속 산업자원부 유망전시회로 선정되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2004년과 2005년에는 무역전시회 인증(AKEI)을 획득했으며, 2006년에는 경기도 지원 무역전시회로 선정되었다. 이밖에도 2004년과 2006년에는 기술표준원 NEP 인증사 지원전시회로도 선정됐다. 이런 화려한 이력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다. 이는 포장재를 비롯하여, 생산에서 물류까지 포장산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유관분야와의 제휴마케팅에 성공한 성과라고 볼 수 있겠다. 특히 ‘코리아팩’은 참가한 기업의 90%이상이 전시성과에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전시회가 얼마나 내실을 기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유럽, 남미 바이어 증가, 활발한 수출 기대

이번 ‘코리아팩 2007’은 그 참가국과 참가업체가 작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작년과 비슷한 규모로 준비했으나, 생각과는 달리 많은 기업들이 전시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부스가 모자랄 정도였다. 그래서 올해 ‘코리아팩’은 등록대가 앞으로 밀려날 정도로 참가부터 성황을 이뤘다. 또 달라진 점은 참가국이 다양화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작년 27개 참가국은 대부분 인접성 때문에 동남아시아권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올해는 유럽과 남미지역에서 대거 참여할 예정이어서 국제전시회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포장산업의 새로운 시장진출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식품, 제약 등 전 산업에 걸친 포장기계 선보여

코리아팩에서는 포장공정에 필요한 각종 포장기계 및 자동화부품, 검사장비, 물류시스템을 살펴볼 수 있도록 꾸며진다. 부스배치는 크게 등록접수대를 기준으로 좌, 우로 나뉘는데, 좌측에는 포장기계업체들이 주로 자리 를 하고, 우측에는 제약, 화장품, 화학 산업 등이 자리를 하게 된다. 전시관외 부스에는 포장관련매체들과 연구 실험기자재 및 첨단 분석 장비들을 선보이게 된다. 최신 포장산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볼거리, 세계적인 세미나도 준비돼 있어

이외에도 ‘코리아팩 2007’은 관람객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사)한국포장기술사회가 선정한 ‘2007년 10대 우수포장상품’이 전시될 예정이고, (사)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에서 꼽은 ‘우수포장디자인 특별관’도 마련된다.

이밖에도 작년에 비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다양한 세미나들도 참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스웨덴 무역대표부의 ‘스웨덴의 포장산업 신기술과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해, 한국포장기술사회에서 ‘환경포장 국제동향과 국내 제도화 방향’ 등의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다. 포장산업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키울 수 있을 만한 세미나들이다.

김정상 기자 sang@print.or.kr

